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공사는 끝났는데 추가 요구가 이어진다면,
남은 대금의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인용

대금 인용

계약 단가·정산 메모·추가 설비 요구를 나누어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공사대금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7,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적힌 단가와 실제 합의한 단가가 다르다고 주장했고, 모니터링 설비와 관련한 요구도 제기했습니다.

설계변경과 한전 연계비,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얹혀 정산 기준이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계약서와 이후 작성된 정산 메모를 함께 보았습니다. 메모에 나타난 단가와 공제 합의를 반영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에 관해 협의한다는 문구가 곧 새로운 개발 의무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할 대금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분한 것입니다.

계약 단가·정산 메모·추가 설비 요구를 나누어 판단

사업을 흔드는 분쟁, 이제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태양광 공사를 마치고도 남은 잔금. 해율은 추가 개발 요구에 따른 지급 거절을 막고 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계약서와 정산 메모의 단가가 달라 다투고 있다면?
- 준공 뒤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 한전 연계비와 공제 항목 때문에 정산이 맞지 않는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시공업체인 의뢰인을 대리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설치 용량, 단가 변경, 부가가치세, 연계비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계약 이행 이후 상대방이 새롭게 요구하는 업무가 실제 합의된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31,617,34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부 공제 합의가 반영되어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지급 거절 주장과 달리 상당 부분의 잔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사 후 정산 메모가 있더라도 그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래의 대금 지급 문제를 분리해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태양광 공사를 마치고도 남은 잔금. 해율은 추가 개발 요구에 따른 지급 거절을 막고 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태양광 공사를 마치고도 남은 잔금. 해율은 추가 개발 요구에 따른 지급 거절을 막고 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협의한다는 메모를 근거로 추가 공사를 강요받는다면?
- 설비는 납품했지만 미수금 때문에 자금 운용이 어렵다면?
-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